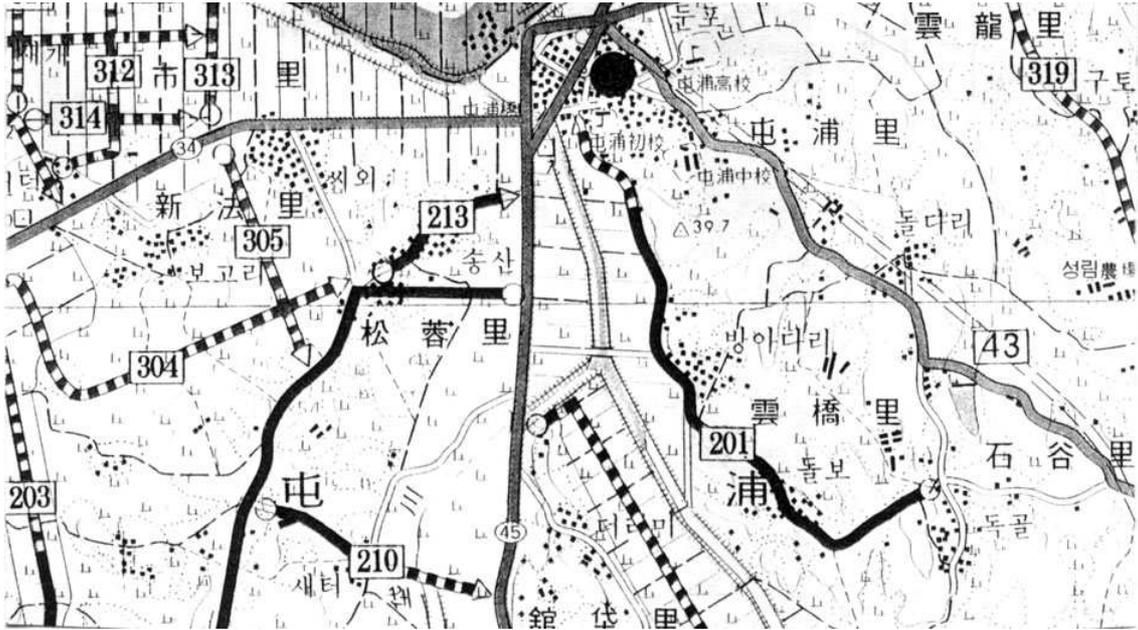


송용리·松蓉里

둔포면의 한 마을로 새터 마을과 송산 마을로 이루어 졌다. 518명의 주민과 141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엔 김씨와 박씨가 많이 살고 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산리, 부용리를 병합하여 송용리라 하였다. 마을의 형성년대는 확실하지 않고 고려초에 아산현에 속하였다가 1914년 3월 1일에 3북면으로 칭하고 1917년 9월 25일 둔포면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용리 위치도>



☒ 송산, 부용, 새터 마을 (송용리)

송용1리는 송용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송산 마을이라고 한다. 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펍 울창하여서 송산이란 이름이 유래되었지만 왜정 말년 수백년 되는 소나무를 베어 가서 지금은 송산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송용2리는 새터 마을이라고 한다. 양씨 중종산인 양병산이 있고 전설이 내려오며 약130여년 전 부용산 아래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가운데에 있어서 새터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조사당시 송용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송산 마을은 위도 36-55-10, 경도 127-01-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둔포방면으로 가다 보면 둔포에 미치기 전에 바로 보이는 마을이 송산 마을이다

새터 마을은 위도 36-55-01, 경도 127-01-1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둔포로 가는 도로편을 따라 가다보면 둔포 비치기 전에 바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은 송용리 1리인 송산이라는 마을이다. 송산 마을에서 온양방면으로 500m정도에 위치해 있다.

2) 현황

송산 마을의 인구수는 392명으로 남자 200명, 여자 192명이다. 106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 중 5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새터 마을의 인구수는 126명으로 남자 69명, 여자 57명이며 35세대가 살고 있다. 그 중 24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송산 마을	392명	200명	192명
새터 마을	126명	69명	57명

- 생업

구 분 마을명	농업	축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기 타
송산 마을	98%	2%	-	-	-	-
새터 마을	91%	9%	-	-	-	-

송산 마을의 농경지면적은 논 56ha, 밭 29ha 이며, 영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등 각종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다.

새터 마을의 농경지면적은 논 32ha, 밭 19ha로 좁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다. 문화시설로는 앰프가 구비된 마을회관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송산 마을	85ha	56ha	29ha
새터 마을	51ha	32ha	19ha

- 농기계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송산 마을	31대	11대	13대	-	8	-	-
새터 마을	19대	6대	5대	3대	-	-	-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송산 마을	1개소	1개소	-	-	-
새터 마을	1개소	1개소	-	-	-

- 성씨별 분포 현황

송산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새터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송산 마을	100%	15%	26%	12%	49%
새터 마을	100%	29%	34%	8%	29%

- 학생 분포현황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송산 마을	6명	5명	4명	2명
새터 마을	8명	5명	4명	2명

- 최고령자

새터 마을의 최고령자는 신관순씨로 77세이다.

- 호당 년평균소득

송산마을은 약 710만원, 새터마을은 약 500만원.

3) 자연 경관

송용리는 둔포리에서 북쪽으로 위치하며 온양에서 평택으로 가는 가는 길에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에 위치해 있다.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도로가 나 있어서 매우 시원하나 마을 모습을 볼수 있다.

4) 마을의 변천과정

송용리는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산리, 부용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하였다.

5) 입 향

송산 마을에는 이씨와 김씨가 많이 살고 있다. 처음 이 마을에 거주한 사람은 경주 김씨로 15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새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성씨는 이씨로 3대째 살고 있다. 마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70년대초반이라고 한다.

6) 지 명

·송 산 : 송용리에서 가장 큰 마을 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껍 울창하였는데, 왜정 말년 수백 되는 소나무 수백주와 그 나머지 소나무도 모두 베고 뿌리를 캐서 송탄 기름을 짚음.

·원 골 : 송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송용리 사지 : 조선시대의 사지로 새터 마을 200m 지점에 있다.

·미륵산 : 원골 뒤에 있는산. 미륵이 있음.

·미 륵 : 상불암에 있는 미륵으로 높이가 8척이 있다.

·상불암 : 원골에 있는 절이다.

·배곶이 : 원골 북쪽에 있는 들로 전에 배가 닿았다 함.

·부용산 : 테두리산 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연꽃같이 묘함. 부용단이 있음.

·부용단 : 부용산에 있는 단. 한재가 심할 때 기우제를 지냄

·한 개 : 배곶이 아래쪽에 있는 들로 전에 큰 개가 있어서 배곶이까기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새 터 : 부용산 아래에 새로된 마을 → 부용

·테두리산 : 새터 뒤 북서쪽에 있는 산. 성터가 있음.

·양병산 : 새터 뒷산. 양씨 중종의 산으로 옛날 전설이 있음. 양병산에 소나무숲이 무성하여 학들의 보금자리였으나 어느날 두 마리의 학이 날아가 음봉면 소동리 윤씨 종산에 자리를 잡고부터 양씨 문종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윤씨문종의 가세는 왕성하게 번창하여 윤씨 문종의 가세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함.

·바깥가래 : 중선모랭이 바깥에 있는 들.

·안가래 : 중선모랭이 안쪽에 있는 들.

·중선모랭이 : 안산 앞에 있는 산.

·안 산 : 송산 앞에 있는 산.

7) 전 설

관터의 옛탑(송산마을)

연대를 알수 없는 오래된 탑이 있으며 관대리 일대는 옛 기왓조각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그곳은 커다란 고을이었다. 주위의 고을에서도 그곳을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생활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이었으며 저녁때면 나는 연기는 풍요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한다. 산으로 둘러 싸여있고 항상 초목이 우거져 산새들은 끊이지 않고 울음을 보냈다. 고을에는 유난히도 부자인 윤 부자가 있었다. 무척이나 절실한 불교인이었기에 집안에는 조그만 불상을 모시고는 불공하고 있었다. 가까운 근처에 작은 암자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큰 그 고을에 이상히도 절 하나가 없었다. 사실 윤부자 내외가 불상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늙어 가도록 하나도 없는 자식을 부처님을 손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단 하나의 유일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윤부자 내외는 날마다 정성을 들이면서 자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항상 불상앞에서 표현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정성을 드린후 부인이 이런말을 했다. "저 우리고을의 가까운 곳에 절을 하나 짓는 것이 어떨까요?"

크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우리 고을에 절하나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겠지요? 우리같이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 절을 하나 세워 여러사람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말을 윤부자는 무릎을 탁치며 만면에 웃음을 띄웠다. "부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모르겠구려 그렇게 합시다." 우선 고을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의 뜻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뜻을 모아 봅시다. 그들 내외는 그런 말을 나누곤 두손을 잡고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고을 사람들은 물론 대찬성이었고 좋은 절터를 잡기로 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일과 같이 열의를 보였고 큰 경사라도 난 것과 같이 여겼다. 또 법당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일 탑을 하나 세워 그들이 절을 세우는 뜻을 남기기로 했다. 5월에 시작한 그 일은 점점 더워져 가는 날씨에 조금씩 형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쏟은 노력과 땀방울들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후에 찾아올 즐거움과 보람을 생각 할 뿐이었다. 물론 윤부자 내외의 기대는 무척이나 컸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냄에 있어 절이 나타내는 모습과 함께 더해만 갔다. 시작한지 열달만에 절은 그 위엄을 내보였고 그날 그 고을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고 커다란 탑 앞에서 제를 올렸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절에서 내려지는 것 같아 고을인들은 황홀해했다. 윤부자 내외는 그절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고 그래서인지 몇일후에 윤부자 부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윤부자 부인이 꿈이었는데 불공을 드리다 웬지 다른때 느끼지 못한 피곤을 느껴 잠시 그 탑앞에 웬 동자가 서 있더니 부인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부인이 신기함에 손을 벌리자 부인의 품안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꿈을 꾀다.

부인은 괴이하면서도 그꿈에 본 동자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음에 조금은 아쉬움이 났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뒤 태기가 있었고 그것을 안 고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야 윤부자 내외의 지성에 감동하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모신 절을 향해 합장을 했다. 윤부자 집안의 즐거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덧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꿈에 나타난 그 옥동자와 같았다. 윤부자 내외는 정성을 쏟아 아들을 키웠다. 평화롭고 아무 화없이 지내던 어느날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가까운곳의 섬나라이며 미개인들이 왜구들이 침략해 온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다. 고을 사람들은 설마 이곳까지 오라 하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뭄이 되어 조금씩 잃어가는 농작물과 전과는 다른 고을의 모습에 가슴을 조바렸다. 그러나 고을에도 왜구들의 발길은 들여 놓아졌고 고을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구의 발길에 짓밟히느냐 하고 걱정을 했다. 물론 윤부자 내외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아들과 또 몇대씩 내려오면서 살은 그 집을 버리고 타지로 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과 윤부자 내외는 커다란 고을안에 남아 부처님의 덕으로 자기들을 화에서 면해 주기만을 빌었다.

결국 그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들어갔고 커다랗고 부유하던 곳은 왜국들의 횡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고을에 남아있던 윤부자 내외와 고을사람 몇은 왜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부수어 졌으나 그들 모두가 피땀을 흘려 세운 절의 탑은 하나도 손실 없이 남아 있었다. 그 절은 왜구들의 손에 불타버려 없어졌지만... 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힘으로 동자가 나온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부처님의 힘이 있었나보다 하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마을에서는 매년 5월8일 어버이날에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잔치를 연다. 마을의 계로는 논계와 상주회가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은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이 마을에는 교회가 따로 없고 근처의 둔포리에 있는 나사렛 교회나 천주교 교회로 나가고 있다.

11) 공장현황

송산 마을에는 공장이 없다.

새터 마을에는 보온덮개를 만드는 원흥헬트와 용접기 제조를 하는 원흥산업전기가 있다.

·원흥헬트-송용172-5, 허가일 96.07.08, 면적 1,826, 종업원수 8

보온덮개

·원흥산업전기-송용123-14, 면적 617, 종업원수 7

용접기 제조

12) 마을의 특성

마을은 큰 길이 나 있는 만큼이나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면소재지가 매우 가까이 있어 많은 시설을 사용하기가 좋게 위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마을의 자랑거리는 단합이 잘된다는 것인데 일찍 마을회관 건설과 마을 간선도로를 포장했었으며 지금도 마을계를 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열어 노인분들을 모시는 등 많은 일들을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